

완도 금일 명품 다시마 우수성 알리는 축제 열려

‘해, 바람, 바다 그리고 다시마’라는 주제 다시마 슬라이딩 등 이색 프로그램 눈길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다시마의 고장’ 금일읍에서 지난 5월 13일 ‘해, 바람, 바다 그리고 다시마’라는 주제로 「제14회 금일읍 다시마 축제」가 열렸다.

축제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 신의준, 이철 도의원, 완도군의회 허공희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들과 최재성 재경금일읍향우회장, 천한욱 재광금일읍향우회장, 주민, 향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됐으며, 축제가 시작된 지 20년을 맞아 예년과는 다르게 프로그램을 더 다채롭게 구성했다.

축제는 금일읍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다시마 효능을 알리는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읍민의 상(구택중 전 완도금일읍수협조합장)을 시상했다.

이어 다시마 슬라이딩 등 체험 프로그램과 다시마, 전복 등 시식, 마을별 단체 놀이기, 노

래자랑, 축하 공연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다시마 슬라이딩’은 참가자가 마을 이름을 크게 외치며 다시마 위에 몸을 던져 손끝이 어디까지 닿는지를 겨루는 게임으로 이색적이어서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한편 다시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 등의 효능이 있으며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몸속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완도 다시마는 정화 작용과 영양 염류를 생성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된 해역에서 자라 맛과 영양이 우수하며, 다시마 등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해양 의학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도 게재된 바 있다.

5월 24일 금일읍에서는 다시마의 풍년을 기원하는 초매식을 가질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축사를 통해 먼저 “그동안 가



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5월 초 단비가 내리면서 제한 급수가 해제되어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다시마의 가치를 더 널리 알려 금일 명품 다시마의 명성을 이어가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다시마 수확 철 어민들의 일손을 덜어드리고 다시마 소비 촉진에

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무용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주민과 향우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다시마 축제가 전담을 대표하는 수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전남도 토지행정 연수대회 최우수상 수상

지역·제조사 업무 연찬회

진도군이 전라남도가 주최한 ‘2023년 지역·제조사 토지행정 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비대면 온라인 온택트 지적 측량 성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능 개선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발표해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토지행정 연수대회는 매년 새로운 주제로 일선 시·군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실무에서 체득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도개선을 통해 한 차원 높은 토지행정 업무를 구현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업무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군민편의 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 히든베이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열린 올해 대회는 국토교통부, 전남도내 각 시·군 공무원과 대학교 교수,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등 250명이 참석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우드랜드 ‘숲마실 산림치유’ 무료 운영

장흥군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숲마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숲마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숲길걷기, 요가와 명상, 마사지, 해먹체험, 다담나무기 등 다채로운 체험으로 구성된 건강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11월까지 매월 2회 올해 총 14회차까지 진행된다.

해당분야 전문가인 산림치유지도사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내 치유의 숲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흥군은 우드랜드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민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장흥군에 거주하고 체험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장흥=김도영 기자

강진군, 쌀귀리융복합산업특구 지정...지방소멸위기 전환점 마련

5년간 총 475억 원 투입

강진군이 ‘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로 지정되어 군 쌀귀리를 널리 알리고 쌀귀리 생산농가들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4차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진쌀귀리 융복합 산업특구’가 신규 특구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쌀귀리 종합가공 유통센터 구성과 재배면적 확대, 지역축제 및 관광 연계 4개 분야 12개 사업 총 475억 원을 투입한다. 군은 현재 쌀귀리 90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3,042톤으로, 이는 전국 대비 64% 수준이다.

쌀귀리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4℃ 이상을 유지하는 온난한 기후가 필수 조건으로, 군은 1월 평균 온도가 1.4℃를 유지해, 쌀귀리 재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기후 요건과 함께, 군은 2006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쌀귀리 2ha 재배를 시작으로, 2022년 기준, 290여 농가에서 838ha를 계약 재배해, 쌀귀리 전국 최대 주산지로 거듭났다.



강진 쌀귀리는 품질면에서도 우수해, 그동안 농촌진흥청 원원종을 보급하는 보급종 증식용 재종포를 운영하고, 우량종자 60톤을 생산 농가에게 보급함과 동시에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 조성으로, 우수한 쌀귀리 품질을 유지해 왔다. 올해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종자보급지역으로 선정되어 5ha(20톤), 2024년에는 10ha(40)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쌀귀리 특구 선정을 위해 도로교통법, 도로법, 옥외광고산업에 관한 법률 등 각 해당법 관련 필지와 현장을 확인 조사하며, 관련 규제 특례사항을 적극 검토했다.

내부적으로는 강진군 쌀귀리 생산업체와 농가, 농업기술센터 등 현장 심사 및 심의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도 특구 계획안에 충실히 담아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산림이 미래자원’ 올해 183ha 조림사업 실시

해남군은 산림자원 확충 및 목재의 안정적 자급 기반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림 사업을 역점 실시한다.

군은 올해 국도비 등 26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산림 183ha에 편백, 백합, 상수리 등 총 3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생장이 우수한 수종의 경제림 집중 육성과 산림의 공익기능 회복 및 증진, 특색있는 산림자원의 지역 브랜드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조림사업은 목재 공급 및 단기소득을 위한 경제림 65ha, 지역특화자원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102ha, 경관조성 및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나무조림 8ha 등이 추진된다.

특히 단기 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 조림으로 황산면 원호지구 등 11개 지구에 42ha 규모의 황칠특화림 및 견과류 웰빙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흑석산에는 철쭉숲 20ha를 조성한다.

황칠특화림은 오랜 전통을 가진 해남 황칠나무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507여ha를 식재하는 등 황칠나무 재배를 규모화해 연중 공급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